

[98 JCC (예수공동체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8)

재림을 약속함

[본문 요한복음 14:22-31]

하용조 목사/ 페이지수: 7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관심은 대중이 아니었습니다. 택하신 자기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이해할 때까지는 많은 고통과 갈등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는 이들이 성령받을 때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믿고, 세례받고 구원도 받지만 그것이 인간의 의지나 이성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그 일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가지만 그것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신 성령님, 인간의 경험과 상식의 선을 뛰어넘는 그분의 자리까지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다녔고 함께 밥을 먹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기적을 눈으로 보아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몰랐습니다. 원가가 시원스럽게 뚫려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외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훈련을 못받아서 도덕적으로는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당신의 도덕적 수준이나 인격적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수준을 보십니다.

제자들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해서 이상한 질문들을 합니다. 도마와 빌립, 이제는 세 번째로 가룟인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세상에게는 아니 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이 가까이 올 수록 자신이 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하다보면 못알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못알아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이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알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개념,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중에도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는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즐기고 모두 그 소리가 그 소릴 같이 생각 됩니다. 잔소리같이 들립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서로 엇갈립니다.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내가 압니다’라고 말했을 때도 예수님께서서는 영똥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갈등을 합니다. ‘거듭나다’라는 말 자체를 못알아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성은 믿음의 사건을 확인해 주는 것뿐이지 인간의 이성이 믿음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나 학식 등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변하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이한 순종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다투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할 만한 것을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것을 알고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모르고 속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에게서 감동받기보다 다 알면서 속아주는 사람을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어려운줄 다 알지만 어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떨하겠습니까? 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연구하고 지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한 번 읽고 버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어서 닳아질 때까지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입니다.

‘사랑’과 ‘선교’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그 배신을 지적하고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새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계명중의 계명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보다 사랑과 경쟁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사람을 섬기려고 하기보다 부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많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것 믿고 감사하는 믿음

24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 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4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말은 하나님 말이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으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내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떡을 떼기 전에 이미 그 믿음이 오신 것이며 이미 오천명이 배불리 먹는 환상을 다 보신 것입니다.

요한 일서에 보면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인가가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성령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그렇게 확신되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옳고 하나님의 뜻인줄 알고 그 길을 가면서도 수많은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선택하고 가는 길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일치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것을 믿으십시오. 누가 기도 많이 해 줄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그 모진 고문과 죽음이 좋아서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의 순교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25~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본을 보내주셨는데 그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벌써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일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며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기도를 잘 하고 싶으십니까? 전도를 잘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거듭나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인치심과 불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기도 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 때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고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났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습니다.

육체적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형태가 되어야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형태로는 악수 하고 포옹할 수는 있어도 내 몸 안으로 들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2천년 전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호흡과 같으며, 바람이시며, 영이십니다. 그분은 물질이 아니기에 형태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형태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줄 믿습니다. 그러나 충만하거나 충만하지 못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기차를 움직이듯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렇게 움직이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불로 역사하시고 바람으로 역사하시면 수증기가 된 물이 엄청난 기차를 움직이듯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성령님 이야기를 마치고서는 평안을 말씀하십시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질 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화려함입니다. 쉬운 것, 쾌락이 내포된 편안함, 안일함입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가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가짜는 가지면 가질 수록 불편합니

다.

잘못된 개념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개념,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참되고 영원하고 내적이며 영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유는 행복이 아닙니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소유를 초월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의 노예가 되면 억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억압합니다. 마귀의 본질은 억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누구든지 너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말게 하라 너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수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키가 한 자나 더 크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받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별 볼 일 없지만 거인의 삶, 위대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의 파도를 헤치고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순이 갈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졸업해야 합니다. 그런 미련,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29~30절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임금이 온다는 것은 죽음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올지라도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다 끝나는 것같이 보여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도 죽음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라길 원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결국 인간적인 모든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갈등은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를 살려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 출처 - 온 누리 신문 (<http://news.onnuri.or.kr>)